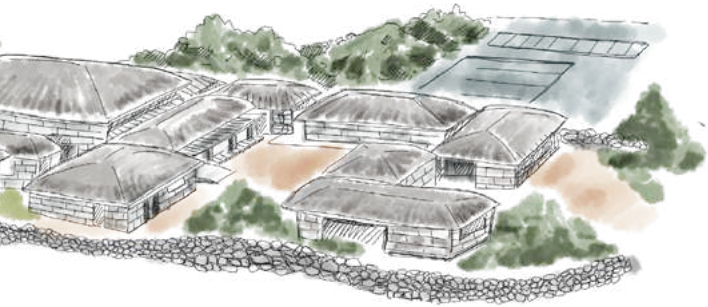




제주의
민속과 자연을 품은
에코뮤지엄

보물섬

정의현성





시작하며

에코뮤지엄 ^{Ecomuseum}이란 생태와 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 ^{eco}’에 박물관이란 뜻의 ‘뮤지엄 ^{Museum}’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계승하면서 이를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을 말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위치한 정의현성은 제주의 가장 대표적인 에코뮤지엄입니다.

성읍리 정의현성의 역사는 1423년 ^{세종 5} 행정의 편지와 방어를 위해 고성리 ^{지금의 성산읍 고성리}에서 진사리 ^{지금의 표선면 성읍리}로 성을 이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약 500년간 제주도 동남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성벽과 성문이 훼손되고 각종 행정 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 명성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의현성은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해왔습니다. 성 안에 형성된 전통 초가 경관은 제주도 내 어느 지역보다 온전히 보전되어 마을 전역이 ‘제주 성읍마을’이란 이름으로 1980년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고, 1984년에는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초가 보존뿐만 아니라 정의현성의 옛 모습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져 온 민속주 빚기, 초가 제작 기술, 제주민요 등 전통 무형문화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의 민속과 자연을 품은 에코뮤지엄, 보물섬 정의현성』을 통하여 정의현성과 관련해 존재했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을 탐구하고, 제주 동남부 지역의 중심이었던 정의현성의 옛 모습을 재현해 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현성과 관련한 고문헌, 고지도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존하는 유적을 제외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유적의 모습과 위치는 역사자료의 고증과 이전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로 추정하였습니다. 약 500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역사, 민속, 자연을 이어온 정의현성의 모습을 시간의 순서대로 알아보면서 장소마다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정의현성

성내 걷기 코스

일러두기

•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17~18세기와 마을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20세기,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2020년 정의현성의 주요 풍경을 지도에 담았습니다.

•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적은 선명하게, 사라진 곳은 희미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요코스

- 1 남측 트인 길 ⇒ 2 평역고 ⇒ 3 현사 ⇒ 4 향소청 ⇒ 5 서문(돌하르방) ⇒
- 6 정의향교 ⇒ 7 고창환 고택 ⇒ 8 관청 ⇒ 9 안할망당 ⇒ 10 내아 ⇒
- 11 사장과 산정 ⇒ 12 의두정 ⇒ 13 동헌(근민헌) ⇒ 14 형옥 ⇒
- 15 느티나무 및 팽나무군 ⇒ 16 작청 ⇒ 17 별과원 ⇒ 18 군기고 ⇒
- 19 사창 ⇒ 20 동문(돌하르방) ⇒ 21 한봉일 고택 ⇒ 22 성읍교회 ⇒
- 23 객주집 ⇒ 24 진무청, 정갑청 ⇒ 25 객사 ⇒ 26 가솔청 ⇒ 27 경찰기관 ⇒
- 28 우편기관 ⇒ 29 노도리방죽 ⇒ 30 원님물통 ⇒ 31 대장간집 ⇒
- 32 고평오 고택 ⇒ 33 연자매 ⇒ 34 남문(돌하르방) ⇒ 35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15~16세기

정의현성 재현도

정의현성을 쌓고 기틀을 잡던 시기의 재현도입니다.
성 안 많은 부분이 비어 있는 것은 당시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추기』^{15세기}, 『세종실록』¹⁴⁵⁴, 『신증동국여지승람』¹⁵³⁰, 『소총유고』¹⁸¹⁰ 등 문헌 속 간략한 내용을 통해 일부 관아 건물의 존재를 확인할 뿐입니다. 특히 지도와 같은 그림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건물의 위치와 형태 등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의향교

조선은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 즉 한 고을에 하나의 향교를 설치한다는 원칙을 수립했기 때문에 정의현에도 향교를 두었을 것으로 본다. 정의현성을 진사리로 옮길 때 향교도 함께 이전했으며 성안 서쪽에 설립되었다. 1660년(현종 1) 1월 24일자 『학교등록』에는 1660년 당시까지 정의향교가 초가 형태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객사와 동헌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외부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객사와 지방관의 근무처였던 동헌은 읍성에서 가장 중요한 관아 시설이었다. 『소총유고』(1810)에는 1498년부터 1506년 사이 객사와 동헌의 규모에 대한 기록이 있다. 부속 시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지방관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내아, 하인들이 거처하거나 각종 창고로 이용하였던 행랑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내아의 경우 발굴 조사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안할망당 북쪽 빈 터를 '아득골' 또는 '아뒤틀'이라 함)에 따라 실제 규모와 위치를 추정하고 있다.

느티나무 및 팽나무군

동헌 주변으로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자라고 있다. 나무의 나이를 측정한 결과 느티나무는 1,000년, 팽나무는 600년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려 충렬왕(재위 1274~1308년) 때 현재 위치 주변에 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느티나무에 대한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의 나무들은 크기가 크고 오래 되었으며 마을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신성시 되어 왔다.

고성리 정의현성

정의현성은 1416년(태종 16) 안무사 오식의 건의에 따라 최초 성산읍 고성리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고성리는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 백성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이 많고, 샘이 없으며, 인근 무도에 왜적 출몰이 빈번한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1417년(태종 17) 5월과 1422년(세종 4)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에 보고되었다.



진사리로 이전하는 정의현성

성이 이전할 곳으로 정의현의 중간 지점인 진사리(지금의 성읍리)와 토산리가 후보지로 꼽혔다. 1422년(세종 4) 당시 도 안무사 정간은 지역을 순회하던 중 진사리가 이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결정하였고,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세종은 1422년 12월 정의현성을 진사리로 옮겨 쌓을 것을 지시한다. 진사리 정의현성은 1423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불과 5일 만에 제주도 전역의 장정들에 의해 완성된다.

초기 정의현성의 규모

정의현성이 이전할 때 도 안무사 정간은 정의현성을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했고, 배추(瓠樞)는 성의 둘레는 2,520척, 높이는 13척에 이르며 세 개의 문을 세웠다고 기록했다. 척을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척이 대략 30cm(영조척 기준)이다. 따라서 당시 정의현성의 둘레는 756m, 높이는 3.9m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복원된 성곽의 둘레는 848m, 높이 2.75~3.8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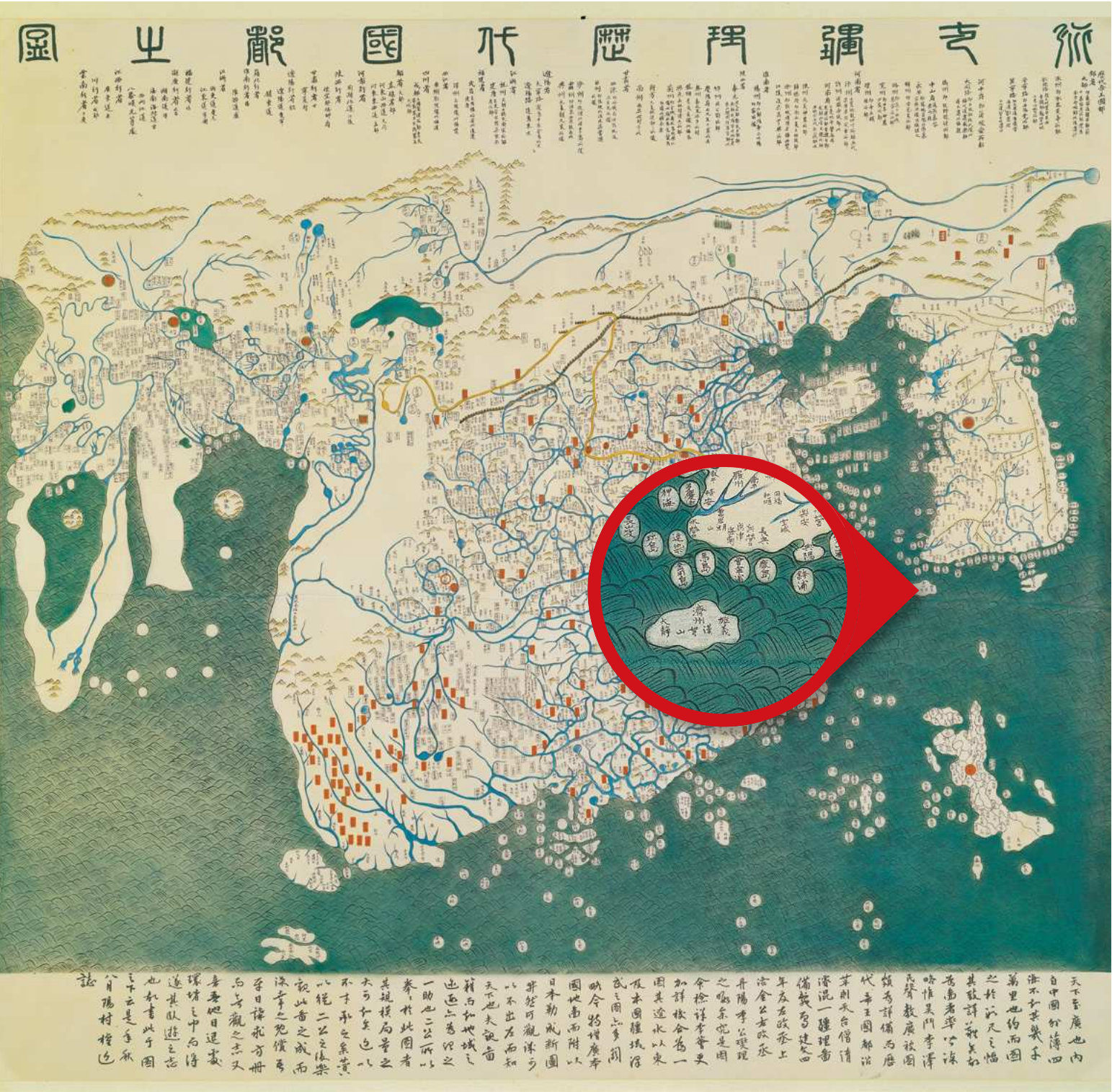


꼬불꼬불 길

정의현성 내 전동 길 중 활처럼 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은 『산림경제』 복거조의 "뚝바로 오는 길은 충파(衝破)라 일러서 좋지 않으니 반드시 구부리고 굴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16세기 정의현성참고자료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40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이자 제작 당시로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세계지도이다. 원본은 전하지 않고 원본을 본뜬 책 **묘사본**이 일본 류코쿠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베끼어 쓴 책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다. 조선이 상대적으로 크게 묘사되어 있으며, 제주 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 ‘대정’, ‘정의’가 표기되어 있다.

배추기 15세기

정의현성을 고성리에서 진사리로 옮길 당시 배추라는 인물이 그 과정에 대해 기록한 글이다. 성을 옮기는 이유와 옮기는 과정, 완성된 성의 크기와 세 개의 문이 있음을 서술했다. 「배추기」는 다양한 문헌 속에 등장하는데, 가장 최초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세종실록 1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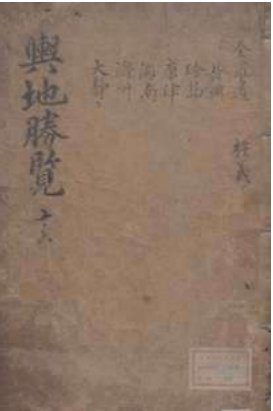
조선 제4대 왕 세종 재위 3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1454년 **단종 2** 정인지 등이 엮었다. 1422년 **세종 4** 11월 최흥우 등 138명의 정의현 주민들이 진사리로 성의 이전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같은 해 12월 세종이 진사리로 성을 옮길 것을 지시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1530년 **중종 25**에 이행 등이 왕명에 따라 『동국여지승람』을 보완하고 개정한 인문지리서이다. 조선의 정치, 제도, 향토역사 등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 받는다. 고성리에 위치한 정의현성의 문제점과 1423년 **세종 5** 진사리로 성을 옮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성의 크기 **둘레 2,986척, 높이 24척**와 신루, 향교 등의 대략적인 위치도 소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창유고 1810

1498년 **연산군 4** 무오사화를 통해 제주에 유배 왔던 조선 전기의 학자 홍유손 **1431~1529년**의 시문집이다. 1506년까지 제주에 머물렀으며, 1810년 **순조 10** 8세손 술조가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정의관사중신기」편을 통해 1498~1506년 사이 정의현 객사와 동헌 등의 형태와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17~18세기 정의현성 재현도

정의현성에 대한 조선시대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기의 재현도입니다. 『탐라지』¹⁶⁵³, 『증보탐라지』¹⁷⁶⁵, 『제주읍지』^{1780~1789}를 통해 동헌, 객사, 향소청, 군기고 등 다양한 관아 시설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제작된 중요한 자료로 《탐라순력도》¹⁷⁰²가 있습니다. 《탐라순력도》속 그림 자료를 통해 당시 존재했던 관아의 위치와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아의 등장

비교적 간략히 서술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17~18세기의 기록들은 각종 관아의 존재를 다수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청과 향소청, 현사는 정의현감을 도와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고 가솔청, 진무청, 정감청, 군기고 등은 지역 방어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동헌과 내아

『증보탐라지』(1765)는 객사(객관) 북쪽에 동헌인 근민헌(近民軒)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탐라순력도》(1702)에도 동헌이 나타나는데 동향을 하고 있으며 동, 남, 북쪽에 부속건물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의 가족들이 거처하는 살림채인 내아는 보이지 않는다. 내아라는 공간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현감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정의향교

17~18세기 정의향교는 《탐라순력도》(1702)를 통해 기와 형태의 건물과 별도의 담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증보탐라지』(1765)를 통해서도 1740년(영조 16) 명륜당 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성문의 변화

《탐라순력도》(1702)에 따르면 정의현성 동문과 서문의 지붕은 초가, 남문은 기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증보탐라지』(1765)에서 모두 띠로 덮여 있었던 성문을 1737년(영조 13)에 정의현감 허승이 기와로 갈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18세기 성문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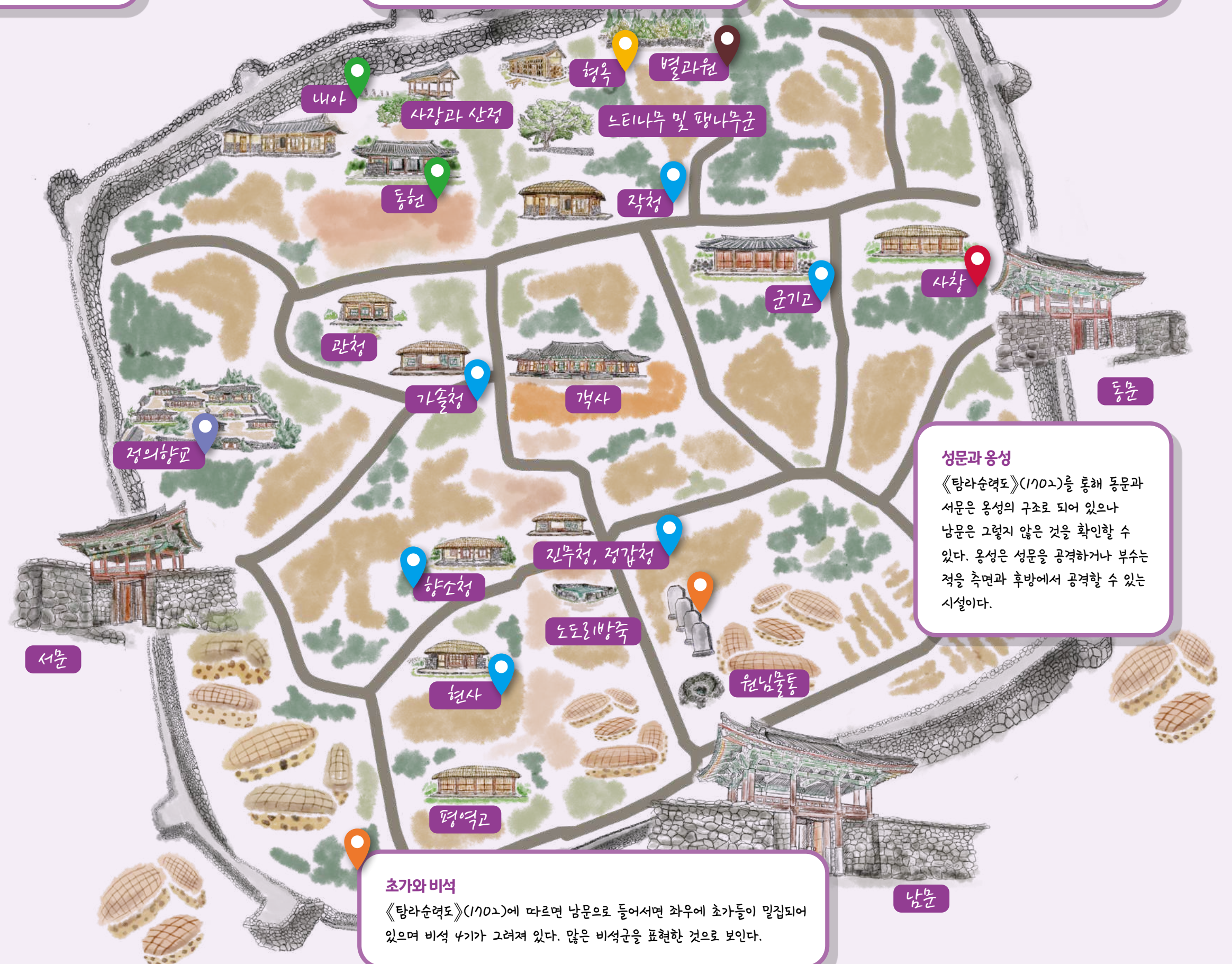
『제주읍지』(1781~1789)에 따르면 죄인을 벌주고 가두던 형옥이 동헌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정의현성 동북쪽 지역을 '옥골'이라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형옥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별과원

『탐라지』(1653)는 동헌 동북쪽에 별과원(別果園)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별과원은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한 감귤을 재배하던 농장이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별과원을 성안 동남부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오늘날 성읍교회 앞에 '별원방죽'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별원방죽'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별원'의 어원을 별과원에서 찾은 것이다.

사창

『탐라지』(1653)와 『제주읍지』(1781~1789), 《탐라순력도》(1702)에는 곡물을 저장했다가 흉년 시 백성들에게 곡물을 대며해주는 사창에 대한 기록이 있다. 객사의 동쪽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객사 동쪽 지역을 '창뒀골'이라 부르기도 해 그 위치를 추정해볼 수 있다.



성문과 웅성

《탐라순력도》(1702)를 통해 동문과 서문은 웅성의 구조로 되어 있으나 남문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웅성은 성문을 공격하거나 부수는 적을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초가와 비석

《탐라순력도》(1702)에 따르면 남문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초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비석 4기가 그려져 있다. 많은 비석군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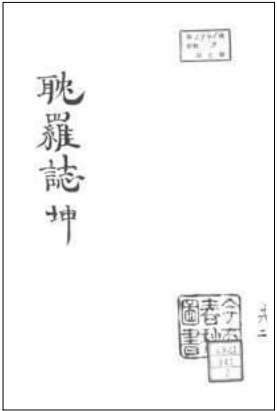
17~18세기 정의현성참고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탐라지 1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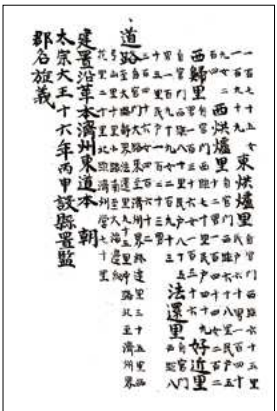
제주목사 이원진이 『동국여지승람』과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을 참고하고 도내 상황과 시문을 수집하여 만든 읍지이다. 현존하는 제주도의 가장 오랜 읍지로서 이후 제주도 관련 문헌들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성의 크기 ^{둘레 2,986척, 높이 13척}와 각종 관아의 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객사를 객관동헌 ^{客館東軒}, 동헌을 아 ^衙라고 표기했다.



©제주문화원

증보탐라지 1765

제주목사 윤시동이 이원진의 『탐라지』¹⁶⁵³를 토대로 제주의 역사, 지리, 풍속 등을 종합한 관찬 ^{官撰} 읍지 ^{邑誌}이다. 성의 크기 ^{둘레 3,013자, 높이 9자}와 각종 관아의 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객사를 객사동헌 ^{客舍東軒}, 동헌을 아 ^衙와 근민헌 ^{近民軒}이라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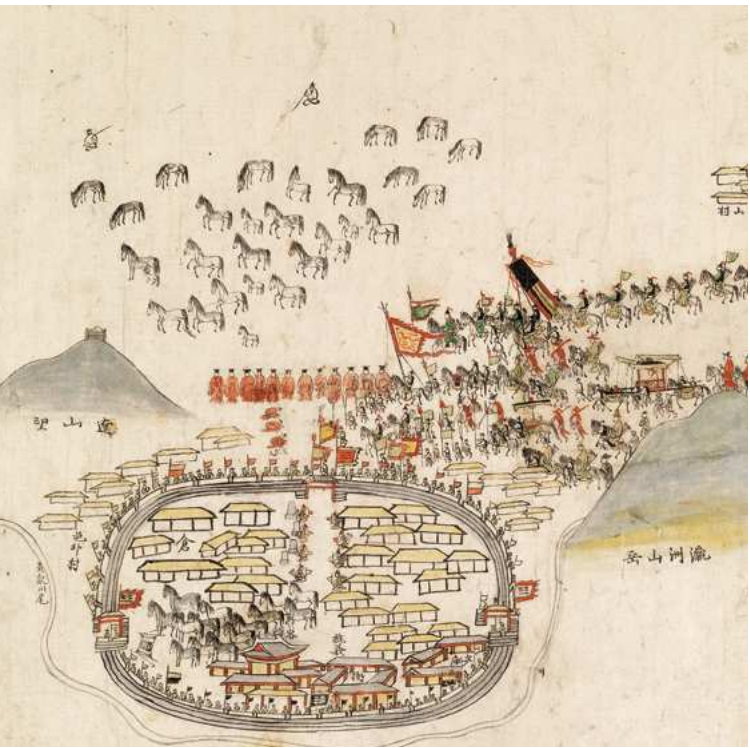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제주읍지 1780~1789

18세기 후반 관청에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대정, 정의 3읍의 읍지이다. 『탐라지』¹⁶⁵³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18세기 후반 제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지방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각종 관아의 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객사를 객관 ^{客館}, 동헌을 현아 ^{縣衙}라 표기했다.

《탐라순력도》(1702)



정의조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정의양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정의강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702년 이형상이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해 제주도 내 각 고을을 순시하고, 한 해 동안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담은 화첩이다. 화공 ^{畫工} 김남길에게 그리게 하고 오씨 노인에게 설명을 쓰게 했다. 정의현성과 관련하여 정의조점 ^{군사훈련과 시설을 점검하는 광경}, 정의양로 ^{양로연 광경}, 정의강사 ^{고강(考講)과 활쏘기 시험 광경}가 전한다.

정의현성 재현도

여러 관아 시설의 이동과 명칭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의 재현도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오늘날 정의현성과 성읍마을을 대표하는 초가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1910-1945년} 이후 훼손되기 시작한 정의현성의 온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정의향교

『탐라지초본』(1841)에 따르면 관청이 너무 가깝고 여염집(일반 백성의 살림집)이 소란스러우며, 문묘의 위치가 의례에 어긋나 성안 서쪽에 있던 향교를 1809년(순조 9) 현감 여철명이 성 북쪽 2리쯤의 화원동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객사의 화재로 현감이 교체되었고, 후임 노상희 현감에 의해 1810년 2월에 공사를 마쳐 3월에 이사했다. 그러나 얼마 후 1849년(헌종 15) 제주목사 장인식에 의해 지금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기록이 『탐라기년』(1918)과 『증보탐라지』(1954)에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옛 가옥들

정의현성 성읍마을 내에는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말 사이에 만들어진 5가구 14동의 초가가 있다. 객주집, 관원 숙소, 여인숙, 대장간 등으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제주도의 전형적인 3칸 형식 구조를 비롯하여 건물 고유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이에 1979년부터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의현성 보수작업

『제주계록』(19세기)에 따르면 1847년 객사와 향교 일부를 수리했으며 1853년 정월부터 3월까지 성문과 성벽을 보수했다고 한다. 당시 정의현성의 보수가 시급했다고 하는데, 1852년 당시 성첩(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은 겨우 형체만 남아 있었고 문루는 모두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화염 속 정의현성

기록에 의하면 1826년(순조 26) 성 안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민가 80여 동이 불탔다고 한다. (*위치는 분명하지 않음)

관아 시설의 변화

19세기 일부 관아들이 사라지거나 위치를 이전했다. 사장은 1841년 이전 폐지되었고, 현사, 사창, 평역고, 산정 등은 1899년을 전후하여 폐지되었다. 1841년 당시 동헌 동쪽에 있었던 군관헌은 1902년 즈음 폐지되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1902년을 전후하여 향소청이 객사 서쪽에서 동헌 남쪽으로, 작청은 동헌 동쪽에서 남쪽으로 위치 변화가 있었다.

의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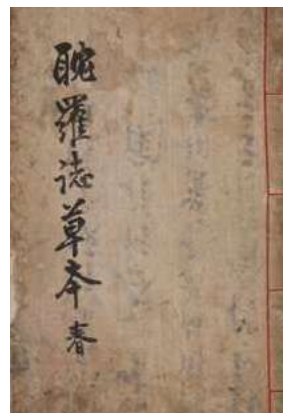
『탐라지초본』(1841)에 따르면 1830년(순조 30)에 정의현감 박종묵이 북쪽 성 위에 의두정(倚斗亭)을 설치했다고 한다. 정확한 위치와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제주목의 제이각과 같이 치성 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군기고

『제주계록』(19세기)에 따르면 1847년 정의현감 이동규가 활, 화살, 철갑, 기, 북, 창, 조총, 화약 등 다양한 무기를 새로 구비하거나 정비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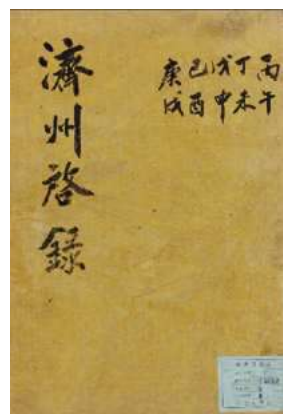
19세기 정의현성참고자료



©한국국학진흥원-기탁문중

탐라지초본 1841

제주목사 이원조가 이전 읍지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책으로 19세기 중반 제주목과 정의현·대정현의 물산과 토속·봉수·호구·고적·씨족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원조는 1841년^{현종 7}부터 1843년^{현종 9} 6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하였다. 정의현성의 크기^{둘레 1,593보, 높이 13자, 여첩 180개}와 각종 관아의 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객사를 객사^{客舍}, 동헌을 일관헌^{日觀軒}으로 표기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제주세록 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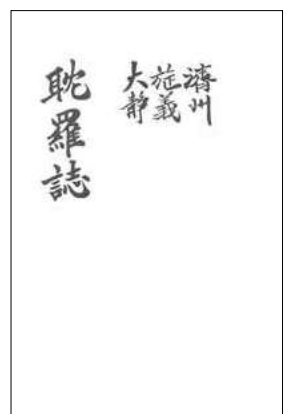
1846년^{현종 12} 2월 26일부터 1884년^{고종 21} 11월 6일까지 제주목에서 조정에게 보고했던 글을, 1864년 이전에는 비변사, 그 이후는 의정부에서 베껴 쓴 책이다. 조선 후기 제주의 역사와 생활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정의현성과 관련해 관아와 군사 무기의 정비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정의읍지 1899

1899년에 편찬된 전라남도 정의 지역 읍지이다. 방리, 도로, 연혁, 풍속 등을 담고 있다. 객사를 객관^{客官}, 동헌을 현아^{縣衙}라고 표기했다. 현사, 사창, 대동고, 평역고, 산정 등이 '현재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 관아 시설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지 1902

남만리가 대정군수로 재임시절^{1902~1907} 저술한 읍지이다. 각종 관아의 위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객사를 객관동헌^{客官東軒}, 동헌을 일관헌^{日觀軒}이라 표기했다. 옮긴 관아^{향소청, 작청}와 사라진 관아^{출신청, (군관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의군전도》(1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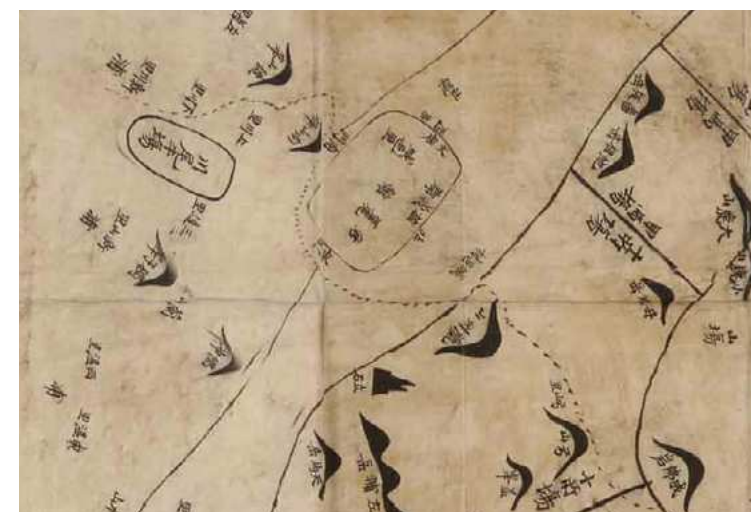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정의현을 정의군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정의현을 대정현과 함께 제주목의 관할에서 분리시켜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 아래 속하는 군으로 승격시킨 시기^{1864년(고종 1)}의 지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체통이 문란해지고, 과거^{科擧}의 폐단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1880년^{고종 17} 1월 27일 다시 예전대로 정의현·대정현으로 환원시켜 제주목사의 관할 아래 두었다. 읍치 지역과 주변 지역을 동일한 축척으로 그렸기 때문에 객사, 동헌^{아사}, 향교^{문묘} 등의 표기를 볼 수 있다.

《제주지도》(189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제주읍지』^{1899년}에 수록된 전라도 제주도의 지도이다. 남쪽을 위쪽에 배치하여 그렸고 객관, 문묘, 창 등을 표기하고 있다.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모두 ‘군^郡’으로 적었는데 1895년^{고종 32년} 을미개혁 당시 지방관제

개정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개편함에 따라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은 모두 군이 되었다. 정의군의 명칭은 1914년 일제에 의한 부군면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어졌다.

정의현성 재현도

*1980년 이전까지

일제강점기^{1910~1945년}와 광복^{1945년}, 4·3 사건^{1947~1954년} 등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 정의현성이 원형을 잃어가던 시기의 재현도입니다. 정의현성은 1910년 일제의 읍성 철폐령 이후 전반이 훼손되었으며, 남과 북을 잇는 ‘—’자형 도로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중심 관아였던 객사와 동헌은 학교와 면사무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동헌^{일관현}이 복원되고 성읍민속마을 전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정의현성의 옛 모습을 찾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읍성 철폐령과 정의현성

1910년 읍성 철폐령을 전후하여 정의현성은 급격하게 훼손되기 시작한다. 1914년에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따르면, 정의현성 내 남북을 통과하는 신작로(지금의 성읍정의현로)가 개설되고 남·북 성벽, 동문 옹성, 남문루, 치성 등이 사라져 있다. 이후 동문과 서문 주변의 일부 성벽도 훼손되었으며 새로운 출구도 형성된다.

주민들의 성벽 보수

읍성 철폐령 이후 무너져 버린 성벽을 다시 쌓은 계기가 된 것은 바로 4·3 사건이다. 군경으로 구성된 토벌대가 주둔하는 마을로서, 주민들은 무장대로부터의 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시작했다. 일부 성벽 중 돌을 쌓은 방식이 다소 균등하지 않아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 이는 그 당시 보수의 흔적이다.

4·3과 정의현성

4·3 사건 당시 정부는 상황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1948년 11월 17일)하고,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우며 주민들을 해안 마을로 분산시키는 초토화 작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정의현성을 비롯한 성읍리 지역은 중산간 마을이면서도 불에 타지 않을 수 있었다. 경찰기관인 성읍지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군경으로 구성된 토벌대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성읍지서의 통제 아래 민보단(民保團)에 편입되어 진압작전에 동원되었다. 4·3 당시 성읍리는 무장대로 인한 2번의 습격이 있었는데 성읍리 희생자로는 75명(2014년 기준)이 있었다.

동헌의 변화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동헌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14년부터 1934년까지 동중면사무소, 1935년부터 1948년까지 성읍리사무소,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성읍리사무소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 골함석(철판) 지붕으로 개조되고 기둥을 잘라내서 건물을 낮추는 등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다. 그러다 1975년 콘크리트로 대폭 개조하여 ‘일관현’이란 이름으로 복원되었으며 문화재로 지정·관리(제주도 유형문화재 제7호/2012년 해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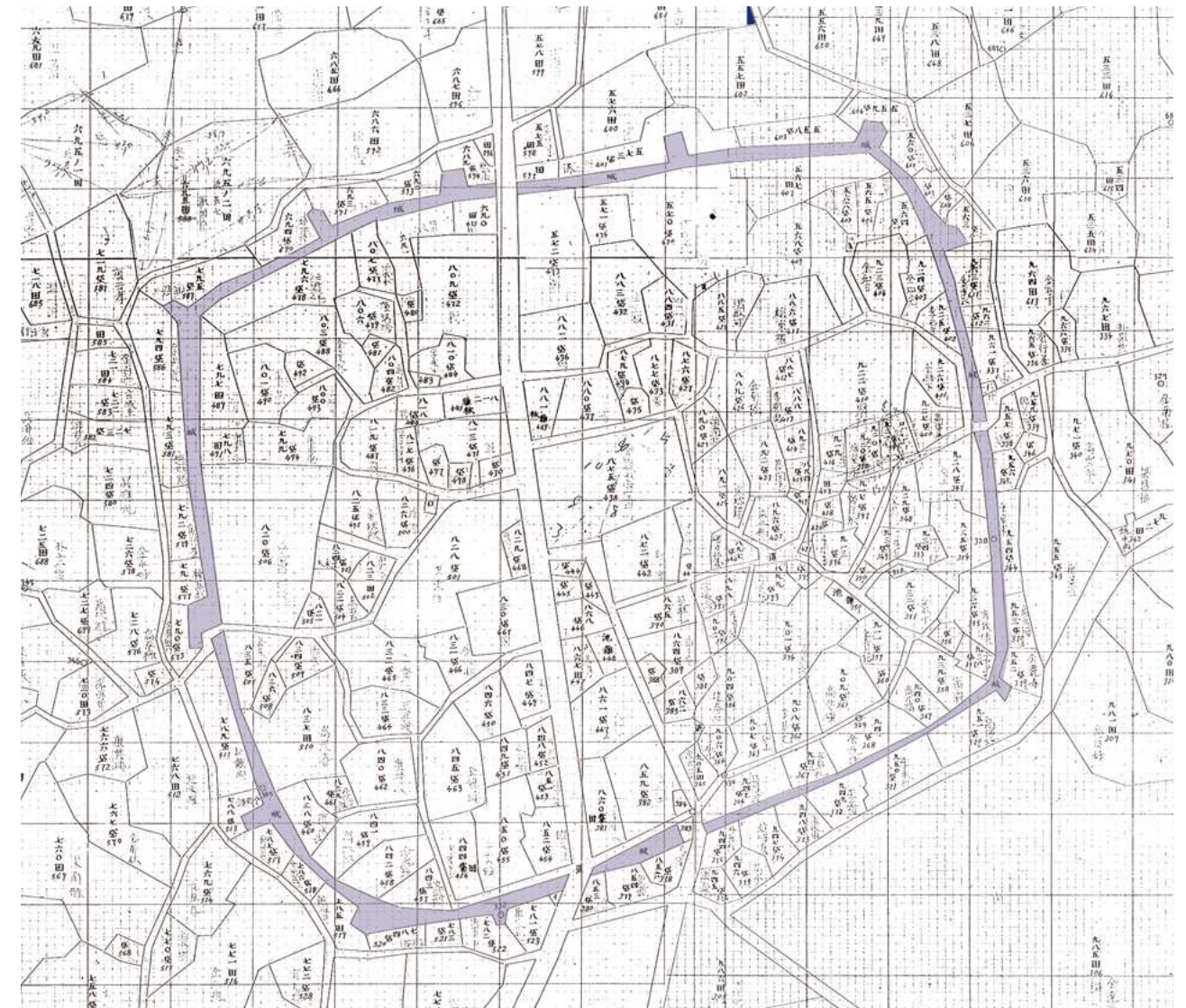
객사의 변화

객사가 위치했던 자리는 20세기 이후 성읍리 지역의 교육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1909년 7월 12일 개교한 공립정의보통학교로, 정의공립보통학교(1911년), 표선공립보통학교(1935년)로 명칭 변경을 거치다 표선리로 이전(1937년 8월)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내 교육기관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의 노력으로 성읍공립심상소학교가 개교(1937년 9월) 할 수 있었고, 성읍국민학교를 거쳐 현재 성읍초등학교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20세기 정의현성참고자료

《지적원도》 (1914)



©지적아카이브

지적원도는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 시기^{1910-1918년}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측량한 세부측량원도이다. 흔히 보는 지도인 지형도와는 달리, 각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국가 또는 개인}를 부분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정의고을 1-4 1973

1973년 12월에 발간된 정의고을 민속자료 보호구역 조사보고서 제55호로 당시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영돈 교수의 성읍마을 민속조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당시 송지준 ^옹^남,^{75세} 등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관아시설의 위치를 추정하기도 했다.



민속촌 지정 보존대상지역조사보고서 1978

1978년 11월에 발간된 조사보고서로, 제주도 내 민속촌 지정 보존을 위하여 제주도와 금성종합설계공사^{대표 김홍식}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성읍1리의 마을 배치, 공간이용, 가옥구조, 주생활문화 등이 서술되어 있다.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 1980

1980년 4월 성읍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제주도에서 발주하여 금성종합설계공사^{대표 김홍식}에서 제작하였다. 정의현성과 성읍마을과 관련한 최초의 종합 보존계획이며 사료와 주민의 구술조사를 통하여 복원할 관아 시설의 형태와 위치를 고증했다.

2020년 정의현성

2020년 정의현성의 풍경을 담은 지도입니다. 정의현성 복원작업은 1984년부터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는 「제1차 종합정비계획(2003~2012)」과 「제2차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2013~2022)」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주민 삶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제주 전통주인 오메기술과 고소리술은 현존하는 한국의 민속주 중 구멍떡으로 빚은 유일한 술로 보존 가치가 높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토양 자체가 벼농사에 부적절한 곳이었으며 비교적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 좁쌀, 보리 등이 주요 작물이었다. 이 중 차좁쌀을 이용하여 청주와 소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메기술과 고소리술이다.

동헌의 복원

동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이 훼손돼 1975년 옛 건물을 헐고 '일관헌'이란 이름으로 복원되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남향 방향이었다. 그러나 《탐라순력도》(1702), 『증보탐라지』(1765) 등 문헌조사와 제주 성읍리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정면 4칸, 측면 2칸인 동향 건물일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14년 '근민헌'이란 이름으로 다시 복원하였다. 일관헌이 아닌 근민헌이란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복원의 기준 자료인 《탐라순력도》(1702)와 가까운 시기의 문헌인 『증보탐라지』(1765년) 속 동헌의 명칭이 근민헌이었기 때문이다.

성읍마을 전통 초가

성읍마을에는 모두 390여 채의 제주전통 초가가 남아 있다. 보존가목을 제외하고 초가의 전통적인 가옥 배치와 구조, 평면 형태 등을 유지하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꾸민 체험가옥들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고 있다.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성읍마을 내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4개 분야(제주민요, 오메기술, 고소리술, 초가장)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2012년 남문 주차장 주변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이 문을 열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조교 등의 정례적인 전승활동과 도민 및 관광객 대상의 전통체험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객사의 복원

객사는 1993년부터 이어진 발굴 조사와 1997년부터 시작된 복원 작업을 거쳐 2000년 복원된다. 일반적인 객사 형태인 정당을 솟을지붕으로 약간 높게 하고, 좌우의 익실(익랑)을 약간 낮게 팔작지붕으로 하는 구조를 취했다. 그러나 《탐라순력도》(1702)에 정의현 객사가 'ㅡ'자 건물로 그려져 있고, 제주목 객사인 영주관의 지붕이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복원 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제주도의 전통 민속문화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는 성읍마을에서는 매년 10월 남문 앞 광장에서 초가집술놀이, 전통혼례식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994년부터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로 승화시켜 주민화합 도모와 관광발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 정의현성과 돌하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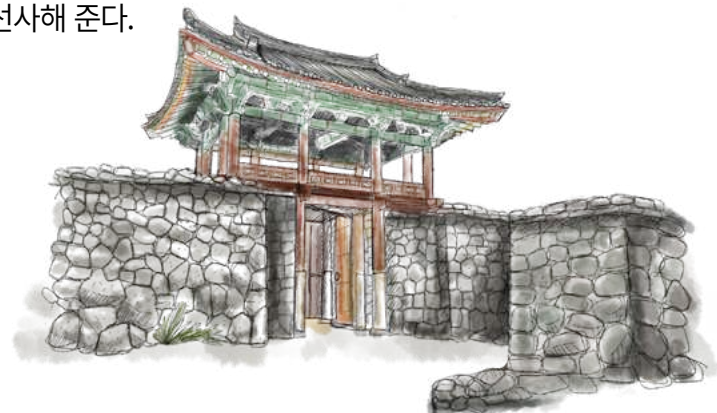
1. 정의현성과 성읍마을

1416년^{태종 16} 제주목사 겸 도 안무사 오식의 건의에 의해 제주도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3읍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삼읍체제^{三邑體制}는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1914년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초기 정의현성은 성산읍 고성리 지역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행정과 주민 편의, 방어를 위해 세종 5년¹⁴²³ 진사리^{지금의 성읍리}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비로소 정의현성 500년의 역사가 시작된다. 성읍마을은 말 그대로 제주 동남부 지역의 읍성이었던 정의현성 안에 형성된 마을이다.

정의현성은 제주도 내 다른 읍성과 같이 동, 서, 남 3문을 가지고 있으며 입구에는 돌하르방이 각각 4기씩 있다. 또한 격대 13기, 여장 180기를 세우고 해자를 둘렀다. 관아시설로는 객사와 동헌, 향교를 두어 명실공히 제주 동남부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1702년^{숙종 28} 제작된 《탐라순력도》에 따르면 정의현의 당시 민가 호수가 1,436호, 전답이 140결, 성수비군이 664명, 말 1,178필, 흑우 228수였다고 하니 상당히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정의현성과 성읍마을은 평범한 농촌마을이 되었다. 하지만 긴 역사를 가진 지역인 만큼 많은 수의 유·무형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다. 옛 성의 흔적과 오래된 초가 및 자연 경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생활문화^{민속주 만들기, 초가 제작 기술, 제주민요}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독특한 재미를 선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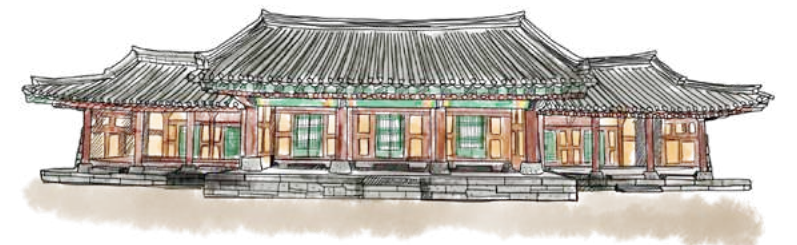


2.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장승의 일종으로서 ‘우석목’, ‘무석목’ 등으로 불리다가 1970년대부터 제주어로 ‘돌하르방’이라 부르게 되었다. 형태는 대체로 병거지형 모자, 부리부리한 왕방울눈, 큼지막한 주먹코, 꼭 다문 입과 배 위 아래로 위엄 있게 두 손을 얹은 모습을 하고 있다. 제작연대는 1754년^{영조 30} 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의현 돌하르방의 평균 신장은 141cm이다. 제주목 지역이 181cm, 대정현 지역이 134cm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중간 크기라 할 수 있다. 돌하르방은 동, 서, 남문 앞 4기씩 세워져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기원하는 수호신적, 주술 종교적 역할과 함께 읍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경계 금표적 기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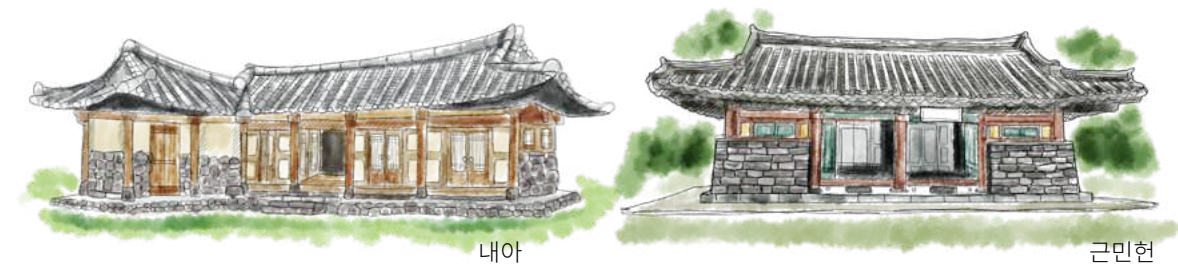


II. 관아



1. 객사(客舍)

객사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안치해 지방에서도 왕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능과 지방에 파견되는 중앙의 관리나 어사들을 접대하는 숙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관아이다.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건물 중에서는 가장 중시되었다. 정의현 객사는 동서객사^{東西客舍}, 객관동헌^{客館東軒}, 객사동헌^{客舍東軒}, 객관^{客館}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소실되었다가 2000년에 복원되었고, 객사에 있던 전패는 유생들에 의해 보존되어 현재는 정의향교에 봉안되어 있다.



2. 동헌(東軒)

조선시대 지방관들의 근무처였던 동헌은 지방관아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지방의 일반 행정 업무와 재판 등이 행해졌고 지방관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내아^{內衙}의 동쪽에 있는데서 그 명칭이 연유했다. 정의현 동헌은 1443년^{세종 25} 현감 송섬의 재임 시절에 창건하여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동서양헌^{東西兩軒}, 아^衙, 근민헌^{近民軒}, 현아^{縣衙}, 일관헌^{日觀軒}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훼손되었고, 1975년 ‘일관헌^{日觀軒}’으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로 지붕과 벽체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철거해 『증보탐라지』¹⁷⁶⁵에 언급된 ‘근민헌^{近民軒}’이란 이름으로 2014년 다시 복원하였다.



3. 향교(鄕校)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에 설치되었던 교육기관으로,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방 백성들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했던 국립교육기관이다. 정의향교는 정의현성을 고성리에서 진사리^{지금의 성읍리}로 이설할 때 함께 성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 차례 증·개축과 이건을 거듭하다 1849년^{현종 15} 제주목사 장인식에 의해 지금의 위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많은 향교 건물들이 남쪽을 향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향교는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삼문 등이 남아있다. 갑오개혁^{1894년} 이후 교육 기능은 사라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4. 작청(作廳)

향리가 집무하던 청사로, 조선시대 향리는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한 중간 관리층이다. 아전이라고도 한다. 실제적인 사무의 처리는 이들에게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란 의미에서 작청이라 하였다. 정의현 작청은 인리청^{人吏廳}, 이인청^{吏人廳}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5. 향소청(鄕所廳)

조선시대 고을 양반들을 중심으로 지방관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향리의 비리나 부정을 살폈던 기관이다. 처음부터 관아로 설립된 것이 아니었으나 지방관을 보좌하여 행정실무의 일부를 집행하는 기구로 변했다. 18세기 중엽의 『정의현지』에 따르면 향소청의 임원인 좌수와 별감을 관직 항목에 수록하여 지방관의 관속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의현 향소청은 향창^{鄕廳}, 향사당^{鄕社堂}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6. 현사(縣司)

호장이 사무를 보던 건물이다. 호장이란 고려·조선시대 향리직^{아전}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지방관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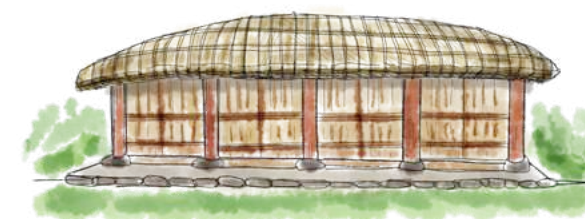
7. 관청(官廳)

관아에 딸린 주방이다. 수령과 그 가족들의 식사 및 손님 접대와 각종 잔치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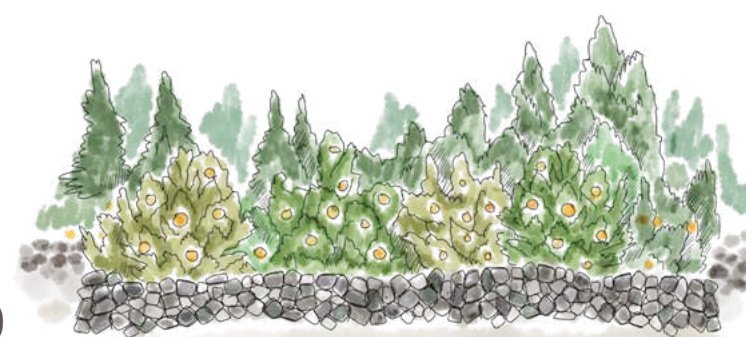
8. 형옥(刑獄)

죄인을 벌주고 가두던 감옥이다.



9. 사창(司倉)

주민으로부터 수취한 각종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정의현성 내 창고의 역할을 수행한 시설로는 사창^{司倉}, 대동고^{大同庫}, 평역고^{平役庫}, 현창^{縣倉}, 영진고^{營賑庫} 등이 있었다.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뺏은 것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설치되었다.



10. 별과원(別果園)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한 감귤을 재배했던 농장이다. 『탐라지』¹⁶⁵³에 따르면 동헌 동북쪽에 별과원이 있었다. 유자^{柚子} 11주, 청귤^{靑橘} 11주, 새로 심은 나무 각 과 26주, 귤^橘 10주가 있었다고 한다.

11. 방어 관련 관아

군기고(軍器庫) 고려·조선시대 각종 무기류를 보관하던 창고이다.

가솔청(假率廳) 조선 후기 변방지역의 방비 강화를 위하여 선발한 특수군인인 가솔을 거느리는 군관 **가솔군관**이 근무하던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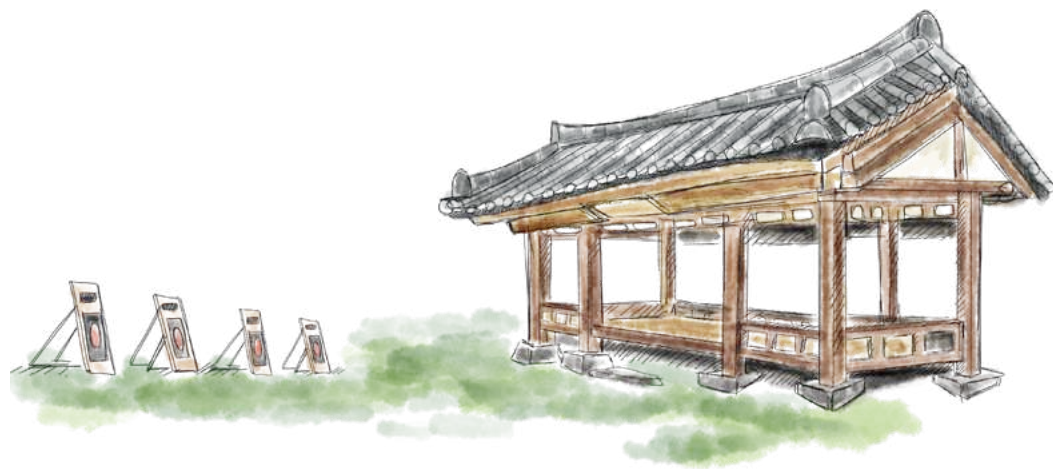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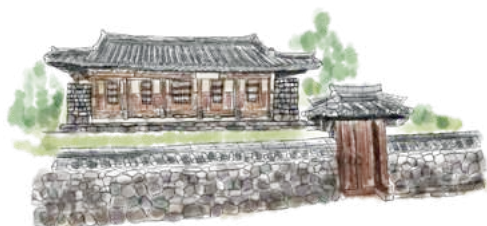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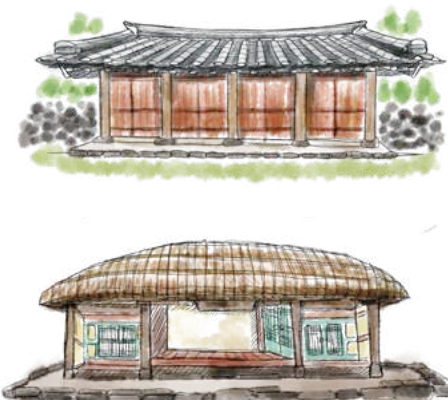
진무청(鎭撫廳) 바다의 방위를 맡은 무관이 근무하던 건물이다.

정갑청(定甲廳) 정로위 **정로위**와 갑사 **갑사**의 근무처였다. 이들은 고급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 초기 만들어진 군대였으나 점차 질적 수준이 떨어져 조선 중기 이후 폐지되었다. 정의현성 내 정갑청은 진무청 한쪽에 같이 있었다.

무학청(武學廳) 병법을 가르치는 무관이 근무하던 건물이다.

대변청(待變廳) 조선 후기 해안 지역 방어를 위해 전함 **전함**과 군기 **군기**를 만들던 곳이다.

군관헌(軍官軒)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근무하던 관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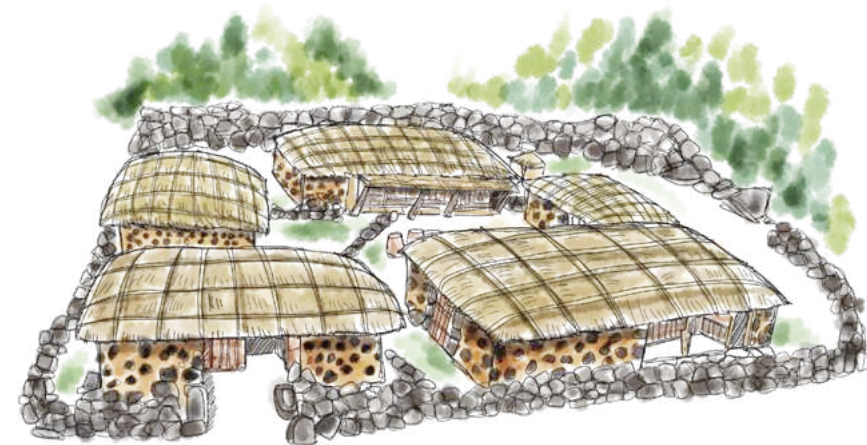
12. 사장(射場)과 산정(山亭)

사장이란 군인과 일반 백성들이 활쏘기를 익힐 수 있도록 성 내에 만든 활터이다. 산정이란 그 활터에 세운 정자를 말한다.

III. 고택

1.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국가민속문화재 제68호)

예전 객주집 **숙박, 운송, 은행, 창고업을 담당했던 곳**이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지은 것으로 보이며 넓은 터에 안채 **안거리**, 바깥채 **밖거리**, 창고, 대문간 **이문간**,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있는 모커리가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바깥채에는 농기구와 가축에 물을 먹이던 돌구유, 객주집일 때 쓰던 돈궤를 보관하고 있어 농가와 객주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량문에서 1901년 조일훈의 할아버지가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하여 과거 '조일훈 가옥'이라 불렸다.



2. 제주 성읍마을 고평오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69호)

예전 면사무소 관원들이 숙식하였던 곳이다. 조선 후기에 지었다고 하며 넓은 터에 안채 **안거리**, 바깥채 **밖거리**,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있는 모커리가 배치되어 있다. 안채 맞은편에 있는 바깥채는 면사무소 관원들이 사용했던 곳으로, 대청마루를 가운데가 아닌 동쪽에 놓고 연이는 2칸 방을 만들어 제주도의 일반적인 평면 구조와 다르게 꾸몄다. 본래 거주자의 이름은 고평호였으나 고평오로 잘못 알려져 명칭이 굳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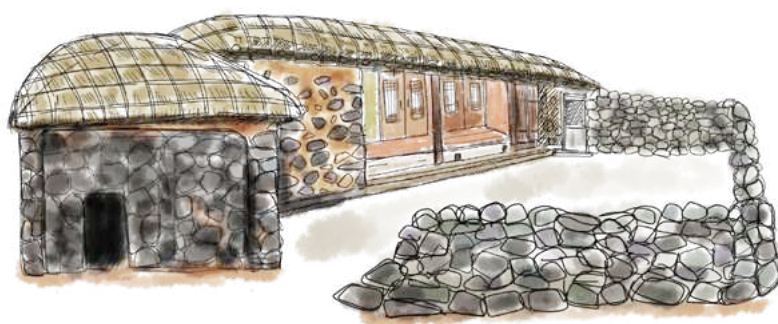
3. 제주 성읍마을 고창환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70호)

예전 여인숙으로 사용하였던 곳이다. 19세기 초에 세운 것으로 보이며 정의향교와 이웃해 있다. 안채^{안거리}와 헛간채를 둔 단출한 구성으로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관집’으로 불린다. 여관으로서 특이한 가옥 형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평범한 옛 농가의 형태를 살필 수 있으며, 대문 없는 민가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문화재 지정 당시 집을 빌려 살았던 이영숙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 문화재 지정 초기 ‘이영숙 가옥’으로 불리기도 했다.



4.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7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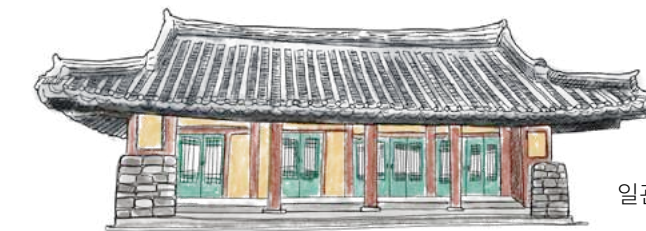
정의현성 동문 옆에 위치한 집이다. 조선 후기에 지은 것으로 문을 달지 않은 대문간, 안채^{안거리}, 바깥채^{밖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 공간 양쪽으로 커다란 팽나무 두 그루와 주변 울타리를 따라 있는 수목들이 집의 경치를 한층 높이고 있다. 전통 제주도 산남^{서귀포} 민가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전통 가옥의 구조와 기능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5.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국가민속문화재 제72호)

예전 대장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지는 집이다. 19세기 후기에 지었다고 하며 원님물통 앞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길은 객사에서 남문으로 이르는 길가로 정의현성 내 중요한 길목으로 알려져 있다. 건물은 대문이 없고 안채^{안거리}와 모로 배치한 모커리로 ‘ㄱ’자형의 단순한 배치를 이루고 있다. 지금은 평범한 집으로 개조되었지만 예전에는 대장간 가옥구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거주자인 고상은의 증조부가 건립하였다고 전해져 ‘고상은 가옥’이라 불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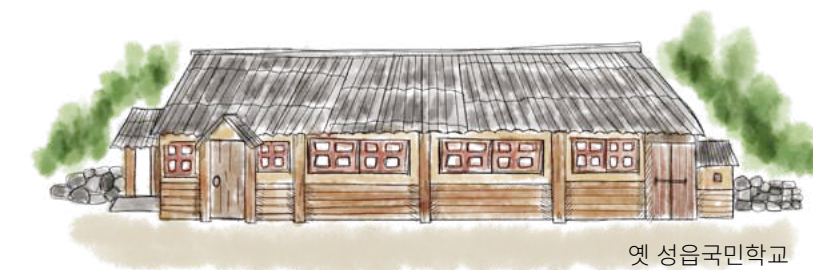
Ⅳ. 근현대유적



일관현

1. 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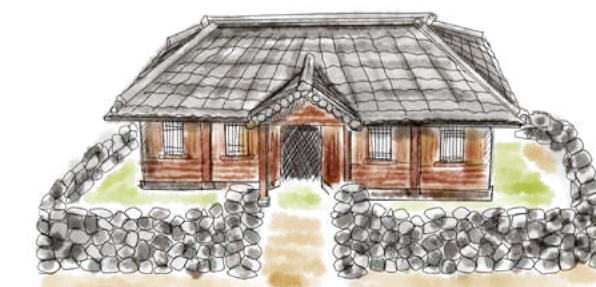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이후 동헌은 사라졌지만 행정기관으로서의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1914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정의 지역은 ‘동면’, ‘동중면’, ‘서중면’, ‘우면’으로 분리된다. 성읍리는 이 중 동중면의 면 소재지가 되었고 동헌 건물은 1914년부터 동중면사무소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주도로^{신작로} 개설은 정의 지역의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해안마을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면사무소를 1934년 표선리로 이전하고 ‘동중면’은 ‘표선면’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 이후 동헌 건물은 4·3 사건의 영향으로 성읍지서로 사용되던 시기^{1948년~1955년}를 제외하고 1935년부터 1975년까지 성읍리사무소로 사용되었다. 1975년 일관현 복원을 거쳐 2014년 근민현으로 복원된 현재의 동헌은, 문화유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옛 성읍국민학교

2. 학교기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던 동헌과 달리 객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이 자리에는 학교기관이 등장한다. 1909년 성읍 최초의 근대 학교로 ‘공립정의보통학교’가 개교한 것이다. 개교를 위해 정의향교의 재산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정의공립보통학교’^{1911년}, ‘표선공립보통학교’^{1935년}로 명칭 변경을 거치다, 다른 기관들과 같이 1937년 8월 표선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가 떠난 자리에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성읍공립심상소학교’가 개교한다. 학교 교육의 공백을 우려한 성읍리 주민들의 투쟁에 의한 것으로 현재 ‘성읍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는 1982년 현 위치^{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로 65}로 이전하였고 그 자리에는 2000년 객사가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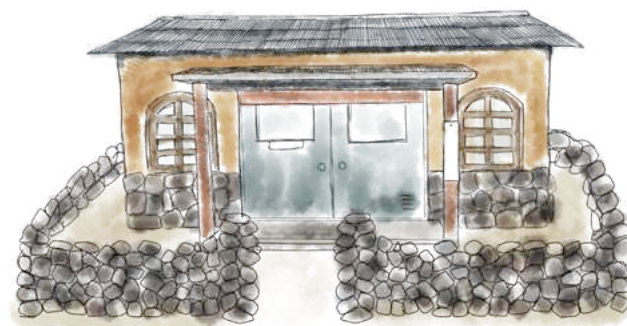


3. 경찰기관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와 침탈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찰제도와 경찰병력 강화를 위하여 1911년 11월 ‘정의순사주재소’가 설치되고 1915년에는 ‘동중면 경찰관 주재소’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일주도로 개통 이후 행정·경제적 중심이 해안마을로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1925년 주재소는 표선리로 이전된다. 그리고 약 20년 후 ‘성읍지서’란 이름으로 경찰기관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4·3 사건에 따라 토벌대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성읍지서는 성읍리와 가시리 지역을 관장하였고 동중면사무소 위치에 설치되었다가 1954년에 폐지되었다.

4. 우편기관

정의현에는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다. 최초 설치된 시기는 1898년으로 '정의임시우체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전국적인 우편망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이후 1905년 '정의임시우체소', 1912년 '정의우편소'로 발전해갔다. 그러나 정의우편소는 1915년 김녕으로 이전해갔고, 성읍리를 포함한 표선면 지역의 우편 업무는 1927년부터 표선리 지역에 '표선우편소'가 설치되면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



5. 성읍교회

1908년 제주도에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성읍교회는 바로 그 이듬해인 1909년에 설립되었다고 전해진다. 정의읍성 천주교회가 '이재수의 난' **제주교란**을 전후해 빈 교회로 남게 되자 이를 인수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주장과 조천읍 출신의 신자가 본인의 집터를 교회로 제공하여 세웠다는 주장이 있다. 원래 초가였던 예배당은 1970년 현재의 슬레이트식 교회시설로 개축되었다. 종탑은 교회 설립 때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V. 자연물

1.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천연기념물 제161호)

동헌 **근민현**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와 팽나무 여섯 그루를 말한다. 고려 충렬왕 때 이 마을에 매우 울창한 숲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불과 몇 그루밖에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느티나무는 키가 30m, 가슴높이둘레는 5m에 이르러 나무의 나이를 약 1,0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팽나무는 키가 24~32m, 가슴높이둘레가 2.4~4.5m에 이르며, 나무의 나이는 약 600년 정도로 추정된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는 오래된 큰 나무로서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보존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정신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문화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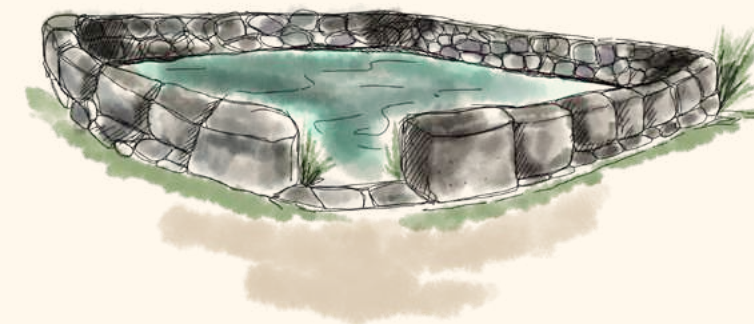
느티나무



팽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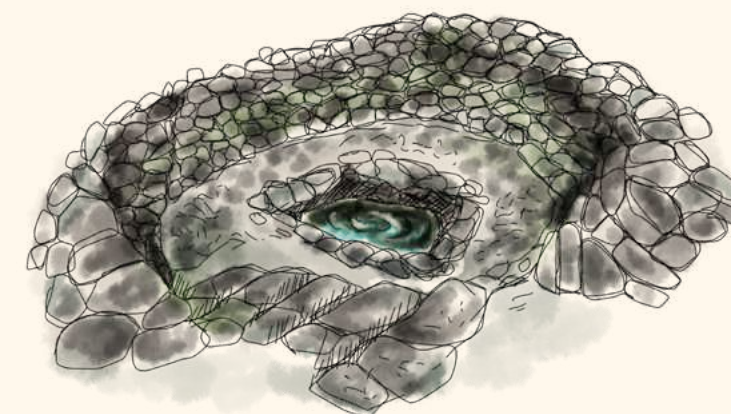
2. 노도리방죽

'노도리'는 원래 '나들이'에서 음운이 변화되어 만들어진 지명으로 본다. 이 곳은 관아에 원정 **호소문**, 소지 **진정서** 등의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거간 **중개인**과 만나 의논하던 곳이며, 관속들이 쉬던 곳이기도 했다. 남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직선 길에 있다. 사각형의 물통으로 예전에는 여기에 창포를 심어 길렀으며, 여자들이나 기생들이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재 새로 정비하였다.



3. 원님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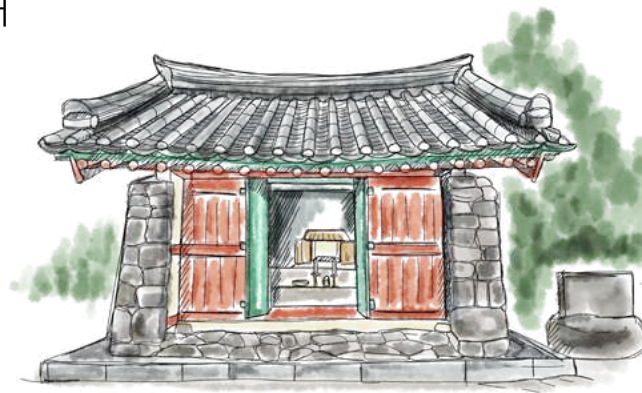
성읍마을 대장간집 앞에 있다.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생수량이 풍부하지는 않으나 천천히 솟았으므로 성읍 인근에서 얻을 수 있는 비교적 깨끗한 물이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의 사용을 금하고 원님이 마시던 물통이라는 데서 '원님물통'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비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가득 찼다가 2~3일 후에는 다 빠져나간다. 남문 가까이 있어 '남문물'이라고도 불린다.



VI. 마을문화

1. 안할망당

성읍리 분향당 마을의 토지나 주민의 생활 등을 수호해주는 신을 모셔 제사를 지내는 집으로 ‘안할망’을 모신다. 안할망은 성읍리 마을 공동의 문제에서부터 주민 모두의 신수와 건강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보살펴 준다고 여겨지는 신이다. 본래 관아 사람들만 모시던 것인데 훗날 서민들이 함께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거에는 느티나무 및 팽나무군에 있는 늙은 팽나무에 제단을 꾸며 모셨으나, 1971년 성읍리사무소를 신축하면서 부지가 서로 접하게 되자 현재의 위치로 옮기고 건물을 지어 모시고 있다.



2. 민속주 만들기

성읍마을 내에는 무속신앙이 성행했다. 무속 제사 시 반드시 술과 고기를 준비했다. 이때 신에게 올리는 강신잔에 따르던 술이 바로 오메기술과 고소리술이다. 모두 좁쌀로 빚은 술로, 주변 평평한 농토에 예전부터 조 농사를 많이 지어 술감이 비교적 풍족한 편이었다. 둘은 제조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오메기술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호 은 차좁쌀로 만든 오메기떡으로 빚어 만들고 청주형태, 고소리술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1호 은 발효시킨 오메기를 증류해 숙성하여 만든다 소주형태.



3. 성읍리 초가장(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제주 성읍마을을 원형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라지는 제주 원형의 초가 복원 기술을 전승하기 위하여 2008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지정 분야는 목공분야, 석공분야, 토공분야, 초가지붕이기분야 등 4개 분야이다.



4. 제주민요(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1989년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되었다. 세부노래로는 「맷돌 노래」,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등 4곡이 있다. 제주민요는 보유자 조을선과 보유자 후보 이선옥에 이어 현재 전수조교 강문희가 전승에 힘을 쏟고 있다. 성읍리를 휘감아 도는 천미천 정소암에서 조선시대 화전놀이가 행해지고 많은 노래가 불렸는데, 그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및 누리집

- 성읍마을회(2015), 『성읍마을』, 일신옵셋인쇄사
-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8), 『제주 성읍리 유적』, 제주콤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2005), 『제주사 연표 I』, 일신옵셋인쇄사
-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 제주특별자치도(2019), 「제주 성읍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2009), 『표선면 역사문화지』, 일신옵셋인쇄사
- 고영철의 역사교실(<http://www.jejuhistory.co.kr/index.php>)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성읍마을(<http://www.jeju.go.kr/seongeup/index.ht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한국고전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list.nhn?cid=41826&categoryId=41826>)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발행인	노정래(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발행일	2020. 10. 30.
총괄	부용식(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기획책임	황이새(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학예지원	김완병, 백지현, 김범수, 고창식
학예인턴	김태희, 김효숙
자문	강기숙, 홍기표
일러스트	한향선
디자인	디자인이야기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632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일도2동) Tel. 064-710-7698 Fax. 064-710-7689
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36-01
I S B N	979-11-87075-10-3

